

기획특집

[기획특집]

열정과 도전의 현지조사: 경험에 관한 진술과 성찰

편집자의 말: 현지조사는 지역연구의 핵심방법이다. 지역연구자는 ‘현지조사 수행능력을 지닌 학자’로 정의되기도 한다. 그래서 지역연구자는 ‘현지조사를 가는 사람’처럼 여겨진다. 따라서 현지조사 경험은 지역연구의 발전을 위해 공유되고 방법론적으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이번 특집도 이런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인류학자 두 명과 정치학자 한 명을 초대하여 박사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현지조사 경험을 진술하고 성찰하도록 주문하였다. 조사지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이고, 주제는 종교, 정치변동, 노사관계에 관한 것으로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상이한 나라에서 상이한 주제에 관하여 조사했지만, 공통적으로 현지조사의 기획, 현지어학습, 조사자금, 현지거점, 현지조력자, 현지적 관점의 확보 과정, 방법론적 평가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현지조사는 지역연구자가 탄생하는 결정적 관문이다. 지역연구에 입문하려는 대학원생에게 현지조사는 청년기의 열정을 쏟아 붓는 도전의 과정이다. 낯선 환경에서 각종 난관을 나뭇의 지혜를 발휘하여 돌파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순간의 연속이다. 여기서 소개되는 세 학자의 고백이 지역연구의 학술적 본성에 관한 사실적 이해를 돕고 동남아 지역연구에 투신하려는 후속세대를 위한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되길 바란다.

